안녕하십니까. 뉴욕 시 제 25 지구 시 의회 선거에 출마한 "스탠리 칼라타라(Stanley Kalathara)"입니다.

오늘날의 뉴욕 시는 기회의 도시임과 동시에 문제의 도시입니다. 현재 학교는 과밀 학급과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교사들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개발업자들은 돈을 버는 반면 원래의 거주민들은 밖으로 쫓겨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시청 내 사방이 꽉 막힌 사무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로(Roosevelt Avenue)를 걷고, 정션 거리(Junction Boulevard)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꿈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식당 일을 하여 학비를 댔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전 많은 것들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시 의회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퀸즈 내 영세 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상인들이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 존스 병원(St. John's Hospital)을 다시 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신설과 특허 학교(charter school) 개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알맞은 가격의 주택을 짓고, 이웃의 존엄성을 지키겠습니다.

전 뉴욕 시로 왔을 때부터 저의 꿈을 이루어 왔습니다. 뉴욕 시민이 다시 한 번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번에 시 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당일 진정한 민주당원인 저, "스탠리 칼라타라(Stanley Kalathara)"에게 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 * *